

협회소식_kira news

2004년 건축사예비시험 실시

지난 5월 9일(일)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홍익대학교에서 2004년 건축사예비시험이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총 1,445명 출원에 821명이 응시하여 56.8%의 응시율로 작년(1,343명 출원, 688명 응시, 응시율 51.2%, 110명 합격)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5월 19일 발표한 합격예정자는 141명으로 학력·경력 심사(제출서류접수 : '04. 5. 27~5. 31)를 거쳐 6월 22일(화)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130쪽 참조)

우리협회 세무·회계정보 개설

우리협회는 세무·회계에 대한 회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세무·회계정보를 개설하여 지난 2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이 정보는 정회원이 로그인하여 "참여광장 -> 세무회계정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코너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은 ▲ 세무 정보 : 회계 및 세무와 관련하여 각종 세무 신고 방법, 예규, 국세 행정의 방향과 세법 개정 내용 등 회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상담 사례 :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상담결과 중 중요한 사항

한편 상담신청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민원 상담으로서 질의 및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지만 확인할 수 있으며, E-Mail을 게재한 경우에는 E-Mail로도 회신내용을 통보해준다.

**2004~2005 전국건축사 회원명부 제작
공고**

우리협회에서 2004~2005 전국건축사 회원명부를 다음과 같이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료는 5월말 현재 본 협회 회원정보 프로그램에 전산 등록된 회원자료를 기준으로 제작할 예정이오니 소속 회원들께서는 필요한 정보, 사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 음 -

- 원고기준 : 2004년 5월말 현재 본협회 회원 정보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자료
- 작성방법 : 2003~2004 회원명부를 기준으로 작성
- 게재내용 : 성명(한글/한자) / 생년 / 사무소이름 /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 팩스번호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인물사진

- 문 의 : 본협회 홍보편찬팀
(02-581-5711~4)

000소장을 000건축사로 부름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 존중을 위해 현행 000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000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일자 및 장소 확정

• 개최일자 : 2004년 10월 7일(목)

• 장소 : 올림픽 역도경기장 (올림픽 파크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4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후 공고될 예정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우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로 이루어진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은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4월 23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건축계의 실무 전문가, 건축학 교육자들이 함께 자리해 건축 분야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국가 간 상호 인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리였다.

1부 행사는 심재호(범건축)씨의 사회로 ▷한국 건축학교육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최재필/서울대 교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에 따른 제도 및 행정 문제 고찰(이관영/한인건축), ▷분과위원회 보고-인증원의 조직과 운영(정진국/한양대 교수), 인증절차와 규정(최명철/단우건축), 프로그램 인증 기준(이근창/엠앤디건축)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2부에서는 박한규(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발표자들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간 차이점이나 5년제 과정 수료자 사이의 교육기간 격차 문제 해결방안, 건축전문대학원 문제 등에 질의하고, 향후 건축사등록원 등에서 담당하게 될 건축사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대학의 교수들만이 아니라 실무경험

이 풍부한 현업 건축사들을 강사로 활용할 것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 내용은 한국 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추진위원회공식 홈페이지(www.kaab.or.kr)에서 볼 수 있다.

2004 건원세미나

2004 건원세미나는 2003세미나의 주제에 이어 '도시 속의 건축, 도시 속의 주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도시 속에 자리하는 건축의 모습과 주거단지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건축설계 및 단지설계의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기획, 건원건축 B2 세미나실(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출구)에서 오후 5시에 진행한다. 두 번째인 5월에는 20일(목)에 성균관대학교 김도년 교수의 '아파트 단지계획의 도시설계적 접근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문의: 02-527-1585 www.kunwon.com

- 5월 20일: 아파트 단지계획의 도시설계적 접근 방법/김도년(성균관대학교)
- 6월: 도시에서 커뮤니티 단위의 이해와 설계에의 적용/한광애(연세대학교)
- 7월: 주거단지의 생활도모계획/제해성(아주대학교)
- 8월: 서울의 옛 도시조직과 새로운 도시건축/송인호(서울시립대학교)
- 9월: 역사도시 속의 집합주택계획-일본의 사례/안재락(경상대학교)
- 10월: 주거단지 내부의 도시적 공간-세계 각국의 길, 광장, 녹지, 공원 들여다보기/김홍규(연세대학교)
- 11월: 도시조직의 개념변화와 블록형 집합주택의 적용 가능성/손세관(중앙대학교)

도시와 환경 사진전 -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리고 서울의 기억'

80일 동안 세계 도시와 환경,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여행하듯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내용은 매그넘,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비스의 대표적인 작품들과 임인식의 50년대 서울의 풍경. '세계의 도시와 환경 사진전'은 저널리즘 사진분야에서 권위있는 사진작가들이 있는 매그넘(Magnum)의 대표 작품과 전 세계 다양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작품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중군 기자로 활동하며 서울의 모습을 공중에서 담았던 임인식 작가의 미공개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는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80일 동안 열린다. 이 행사는 환경재단과 세종문화회관 주최로 이루어진다.

문의: 환경재단 그린페스티벌 사무국

(02-725-3654 www.greenfestival.or.kr)

홍익건축 50주년 기념사업

올 10월로 50주년을 맞게 되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총동문화장 박 승)는 학과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조형물 제작'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형물 제작은 동문을 대상으로 공모전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 외에 50주년 기념집 출간과 기념 작품전, 기념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전시회는 재학생과 동문들의 공동전으로 열릴 예정이며, 각 기별로 일정한 전시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념집 출간을 위한 동문들의 건축, 인테리어, 사진 등 자료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518-7257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30주년 기념 강연

국민대학교 건축대학에서는 건축대학 30주년을 기념하며 제11회 건축전 주제 강연을 마련, 본관 학술회의장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의: 02-910-4112

- 5월 18일: 김종성(서울건축)/모더니티와 모더니즘

- 5월 28일: 김우일(협동건축)/세컨드모더니티의 건축

- 6월 1일: 이진경(수유연구소)/모더니즘과 휴머니즘

대한민국건축대전 작품공모

한국건축가협회는 오는 6월 11일까지 2004년도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원서를 교부한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2004년 건축가 축제 및 대한민국 건축대전 일정을 확정하고, '건축의 지속성'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건축가 축제를 개최한다. 문의: 02-744-8050

제5회 수원화성도시건축대전 작품 공모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화성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제5회 수원화성도시건축대전'을 개최한다. 도시 계획 및 건축, 조경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세계문화 유산 수원화성의 거듭나기'로 수원과 화성의 문화적 가치와 그 우수성에 대한 예비 건축인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행사이다.

사단법인화성연구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5월 31일까지 화성연구회를 통해 신청하고 작품 제출은 10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11월 2일 결

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총 2,0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질 예정이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 전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사단법인 화성연구회(031-226-7223)

제22회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문 대상에 '교보타워'

2004년 「서울사랑시민상」건축부문(종전 서울시간축상) 심사 결과 창조건축(대표:김홍철)+마리오보타가 설계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보타워'(건축주: 교보생명)가 대상에 선정되었다.

본상에는 원양건축(대표:이종찬) 설계, 두산건설 시공의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공군회관'이 선정되었으며,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 2002년 신설된 리모델링 본상에는 정림건축(대표:김정식) 설계, 두산건설이 시공한 '삼양사 본사 사옥'이 선정되었다.

그 외에 포스틸타워(설계: POS-AC), 미켈란107(설계: A-Group), 서울통합민자역사(설계: 아키텐), 아트레온(설계: 범건축+김준성), 더 월(설계: 단아건축), 조린현(설계: 이로재 김효만), 서초현대슈퍼빌(설계: 건원건축) 등 7개 건물이 일반건축물부문 장려상에 선정됐고, 올림픽 제1체육관(설계: 이상건축), 한국요업사옥(설계: 성연건축)이 리모델링부문 장려상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시민상 시상식을 오는 6월 17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갖는 한편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전시회를 연다.

Summer 2004 School of Architecture, Kookmin University

ARCHCAMP

2004학년도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주최 전국 고등학생 건축디자인캠프

특강 및 건축디자인작업, 크리틱을 통하여 건축에 대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수성 이상 입상자에게는 보고 건축대학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제 기준에 따른 국내 최초의 6년제 건축대학으로 다시 태어난 국민대학교 건축대학은 우리나라 건축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건축설계 전문대학입니다. 건축에 대해 흥미를 갖고 미래의 건축가를 꿈꾸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 대학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특강 및 건축디자인작업, 크리틱을 통하여 건축대학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게 됩니다.

1차 프로그램에서 건축에 대한 특강 및 건축디자인작업을 하게 되며, 2차 프로그램에서는 1차 프로그램을 통한 상위 그룹 작품에 대한 크리틱을 통하여 입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우수성 이상 입상자에게는 보고 건축대학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행사기 여러분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지역: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참가기간: 1차 프로그램 2004. 7. 25(일) 2차 프로그램 2004. 8. 1(일)
-참가인원: 2004. 6. 7(월) ~ 6. 26(일) 1300명까지
-재원: 1차: 중점(사)01 부원(원) 참가자원시 1(부)보고 소양생원, 참가비
참가비: 본고 홈페이지(http://arch.kookmin.ac.kr)에서 다운받거나 학교에서 사용한다. 입학원서를 할 경우에는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한다.

-공식입문대원과 입학처:
1) 인터넷 접수: http://arch.kookmin.ac.kr
간호교육수: 국민대학교 북부관 4층 404-2302(평일 18:00까지)
영 우편접수: 본도시 등(로) 우송하고 마감일: 우편국 소외 포함 불가
주소: 11367-02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학동 412(제) 입금방법: 무통국 소액현금으로 원사의 등용
신청기간: 11.00.00
선정: 11월 15일 전까지 정선결과지를 발송하여 참가비와 함께 등기로 발송해야 합니다.

-시상내역 및 특전: 최우수상(1명, 우수상 2명, 일반상 10명) 상금 및 부상 수여
우수성 이상 입상자에게는 보고 건축대학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우수성 이상 입상자 중 상위 50%에 참가비 전액은 입상생에게 현금 그리고 보고 전형에 합격한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단, 장학금과 합선하는 수(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입상자 선정방법:
1) 크리틱 본 대학 교에서 위촉한 교수 및 대학교수 또는 건축전문가
나 2) 작품중심 상의 작품을 선별하여, 2차 작품발표회를 진행하여 1차, 2차 작품발표 상사들
통해 최종 입상자가 선정됩니다.

다 2차 심사 일정 발표: 2004. 7. 27(일) 오후 2:00에 건축대학 홈페이지에서 발표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자 2명에게 불합격은 2차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2차 심사 일정: 2004. 8. 1(일) 오전 10시 / 장소: 부원관 303호
다 시상식 발표 및 시상: 2004. 8. 1(일) 14:00
바 2차: 부원관 건축대학 4층 로비 및 http://arch.kookmin.ac.kr

-참가비용:
기본적으로 고교생이 지원할 수 있는 건축설계 체험으로서 개인적 정의성이 밝혀지는가
제주의도의 계획의 원상도와 표현(1) 결정(2)에 불합격되는가

-공시방법:
가 대학원기 작품은 일제 원본만 보내지 않으며, 소용원은 국민대학교에 귀속됩니다.
나 지원서 접수 후에 참가비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대학 수용어전에 따라 참가자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아래 주소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주소: 11367-02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교학동
홈페이지: http://arch.kookmin.ac.kr
전화번호: 02)910-4112, 4590



중국 청도시 「코리아타운」 국제현상설계 공모

중국 천태그룹은 청도시가 2008 북경올림픽 수상경기 개최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2002년 10월 천태올림픽가든을 착공하고, 올림픽가든내에 부지 12만㎡ 규모의 코리아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국제현상설계를 실시한다. 응모는 오는 7월까지이며, 심사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응모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의: +86-532-5931920, 5931916

www.gdkcs.com

△ 개요

- 대회 내용
- 코리아타운 설계부문
- 주택 설계부문
- 유치원 설계부문
- 설계 요구
- 출입구가 2개 설치되고 녹지면적은 전체 50%이상이어야 함.
- 주택은 총 1,200세대로 12층 건물과 18층 건물로 설계되어야 함.
- 주택구조에 대한 요구

세대수	면적(㎡)	구 조
360	90-100	방2개, 거실1개, 주방1개, 화장실1개
540	130	방3개, 거실1개, 주방1개, 화장실2개
180	150	방4개, 거실1개, 주방1개, 화장실2개
60	170-180	복합식

- 주차장은 1가구당 1대의 기준의 설계하며 지하공간을 우선 이용하여야 함.
- 상점, 초등학교, 음식점 등 시설은 올림픽 화원과 공유하기에 설계에서 제외
- 유치원이 별도 설치되고 편의점, 미용원, 세탁소 등 편의시설도 설계되어야 하며, 아파트관리사무소도 마련되어야 함.
- 유치원은 9개반이 설치 가능토록 설계되어야 하며, 3층 규모에 면적은 3,000㎡ 내외 임. 모두 온돌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 제출 자료
- 각종의 평면도(1:100), 주요 공간의 사용면

- 적, 각종 면적 및 건물 총면적
- 총 평면도(1:500)
- 입체도 및 해부도(1:100)
- 간단한 설명
- 필요한 확대도면, 투시도
- 실내 인테리어 도면 및 투시도

국제학생전시회 개최

"Architecture and Renewable Energy Source" 주제로

UIA의 International WorkProgram에서는 "Architecture and Renewable Energy Source"라는 주제로 국제학생전시회를 개최한다. 2005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제22차 UIA 총회 중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부주제는 "Environmental Architecture & Sustainable Town - Environmental Friendly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이며, UIA 그리스 지부에서 주최한다.

- 제출서류: 포스터(A3 사이즈 1장), CD 1장, 언어(영어)
- 일정
- 등록 및 문의사항 : 2004. 7. 15
- 제출마감 : 2005. 1. 15
- 수상작 전시 : 2005. 7. 4~11
- 문의 및 제출:

Http://www.arch.ntua.gr/Ares

email : env-uia@arch.ntua.gr

fax : +30 210 772 3592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Port-Louis시 도시계획을 위한 국제아이디어 공모전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Port-Louis시 행정당국은 도시계획을 위한 국제아이디어 공모전을 발표하였다. 작품제출양식은 A1 3장으로 1/5000 및 1/1000 스케일로서 평면, 입면, 조감도 및 스

케치 등을 포함하고 A4 최대 4장의 설계보고서로 작성하면 된다. 참가지원서는 웹사이트 <http://mpl.intnet.mu>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심사는 Berzil Ozalp, architect (Turkey) / Ariel Iglesias, architect, town planner (Argentina) / Wafaa Hammoud, architect (Lebanon) / Mammood Sairally, architect (Germany - Mauritius) / Peter Droege, architect (Australia) / Ashok Bhalotra (Netherlands), representing the UIA / Hirendranath Rambhojun, architect (Mauritius) / V. Saha, town planner (Mauritius) 등이 맡는다.

- 일정
- 등록마감 : 2004년 6월 12일
- 작품제출마감 : 2004년 9월 2일
- 심사 : 2004년 9월 21일 ~ 23일
- 작품전시회 : 2004년 9월 28일 ~ 10월 5일
- 참가비 : 150 US\$
- 시상
- 대상 : 40,000 US\$
- 우수상 : Old Barracks & Victoria Station Site : 15,000 US\$
North Station Site : 15,000 US\$
- 문의: Tel: + 230 212 0831 / 7
Fax: + 230 212 4258
E-mail : concourspl@servihoo.com
web : <http://mpl.intnet.mu>

제39회 센트럴 글래스 국제 건축 공모전

'아시아 프론트 빌리지(Asia Front Village)' 주제로

1966년부터 일본의 센트럴 유리주식회사와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잡지인 '신건축'은 매년 센트럴 글래스 국제 건축 설계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1976년부터 해외 참가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부터 국제공모전이 되었다. 적절하게

반영된 세계적 관점이 매년 공모전의 주제로 선택되며,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아시아 프론트 빌리지'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의 세계화 그리고 20세기의 주목할 만한 주제로서 21세기의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하다. 문화는 기후, 자연지형, 역사 등에 의해 형성되며, 세계는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한다. 21세기에 고유하게 전해내려 온 문화의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그 가치의 다양성을 활성화시키고, 인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전반적인 개념을 보다 많이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아시아 프론트 빌리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심사는 토요 이토, 오카모토 마사루, 구마 켄코 등이 참여하며, 코디네이터는 바바 쇼조가 맡게 된다. 접수는 7월 26일까지.

참조: www.cgco.co.jp/english/glass_house.html

2010년 상해박람회 기획 및 디자인 국제 세미나

상해 박람회 조직위원회, 상해 건설조직위원회, 상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주최하는 2010 상해박람회의 기획 및 디자인 국제 세미나가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상해 시립 도서관 1555 Huanghai Zhonglu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박람회 사이트의 레이아웃 및 기능에 따른 배치, 기념비적 건축물의 스타일과 형태, 박람회 지구의 교통 문제 해결책, 박람회 지구의 지하공간 활용안, 박람회 행사 마친 뒤의 영구 파빌리온과 박람회 지구 활용안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패널 토론에 이어 Zhujiajiao 방문, Songjiang 신도시 방문이 함께 이루어졌다. 램 쿨하스를 비롯한 건축가들이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 두번째 패널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발표자 : 램 쿨하스 (Rem Koolhaas), OMA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 주제 : Doomed to Success?

- 개요 : 2010년 상해 박람회의 경제적, 인구 집중적인 현 상황에서 박람회의 성공을 이미 확신할 수 있다. 상해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활기찬 경제를 가지고 있고, 상해는 세계의 가장 인구밀도가 조밀한 곳에 위치되어 있어서 2010년은 문화 및 지성의 이상적인 순간이 될 듯하다. 그러나 커다란 가능성만큼 위험도도 크다. 만약 상해 박람회가 상해의 경제 기반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기회로서만 사용된다면 상해 박람회는 실망으로 기억 될 것이다. 그러면 2010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동아시아는 세계 속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한국과 더불어 중국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조밀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에서 상해가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 1851년의 첫 번째 박람회 이후로 박람회는 개최지의 경제력과 도시화를 반영하고 있다. 박람회 출범 이래로 세계 박람회의 기획에는 아주 작은 혁신이 있었을 뿐이다. 박람회장은 여전히 광활한 대지 위에 여기 저기 서있는 각국의 파빌리온들이 서있을 뿐이다. 상해 박람회가 이러한 개념을 깨고 처음으로 다른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램 쿨하스의 파워포인트 발표에는 끌라쥬가 많이 사용되었다. 요즘의 박람회는 마치 디즈니랜드를 연상시킨다면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디즈니랜드를 배경으로 총을 들고 서 있는 중동권 아이들을 끌라쥬로 만들어서 보여주었다. 왜 각 나라별로 파빌리온이 따로 서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번 상해 박람회에서는 화합된 모습의 파빌리온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어 유럽의 EU연합국은 한 파빌리온에 전시되어야 하고, 중국-한국-일본 역시 한 파빌리온을 빌어 서로를 전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아무래도 의도적인 듯, 한국을 항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넣었다.

- 발표자 : 피터 아이레스 (Peter Ayres), 아룹 그룹 (Arup Group)(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

- 주제 : 건축 형태에 대한 구조의 영향

- 개요 : 구조는 건물의 형태와 양식을 결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외부벽의 뒤에 숨겨질 수 있다. 이 두가지 다른 접근방식은 적절한 상황에 건축적 가치를 가져 줄 수도 있다. 이전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거나 전시 파빌리온들을 예로 들어서 공사비와 시간, 운영시의 고려할 점과 이런 시설들의 박람회 이후의 재활용안에 대한 발표이다.

- 발표자 : 마틴 로바인 (Martin Robain), Architecture Studio 상해 박람회 마스터 플랜 국제현상경기에서 당선된 프랑스 회사

- 주제 : 더 나은 도시, 인생 · 2010 상해 박람회를 위한 상징은 어떤 것인가?

- 개요 : 박람회를 위한 상징으로는 기술과 자연의 역사 그리고 현대적인 정신을 들 수 있다. 상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는 세계 박람회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다. 세계 박람회는 19세기 유럽 공업사회의 상징이며, 20세기 초반 서구문명과 20세기 후반 형성된 지구촌 문화의 상징이다. 세계 박람회는 미리 정해진 공간과 시간 속에서 마치 극장의 연극처럼 생존하는 이벤트라고 정의 내림.(자료제공: 육은아 희림건축 이사)

제15회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김수근문화재단에서는 제15회 김수근 문화상에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김병윤)'를 선정하고 6월 14일(월) 오후 5시에 공간사옥마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또한 시상식에 이어 '선유도 공원'을 주제로 제14회 수상자인 정영선 + 조성룡 씨의 전시회 오프닝이 있을 예정이다.

전시는 6월 27일까지 공간사옥전시장에서 열린다. 문의: 02-743-7281(담당: 최원준)

〈심사평〉

김수근 문화재단 전문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작으로 추천한 작품은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김병윤), 무주 작업들(정기용), 덕원갤러리(권문성), 아트레온(김준성+범건축 박영건) 등 4점이었다. 이 네 작품들은 각각 다양한 분야의 건축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멀티플렉스 극장인 아트레온은 전면을 투명한 유리 벽으로 구성하여 블랙박스로부터 해방시켰고, 과감하게 1~2층에 광장을 만들어 축제적 행위들을 유도하고 있다. 멀티플렉스 기능과 신촌 대학가라는 장소성에 참신한 해법을 제시했고, 재료의 성질에 대한 치밀한 탐구를 세련된 디테일들로 풀어낸 수작이다. 그러나 9개의 영화관을 적층해야하는 프로그램과 최대용적 속에서 부분적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상업건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인사동의 빛나는 성과”로 평가되는 덕원갤러리는 기존의 평범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새로운 도시적 기념물로 탈바꿈시킨 작품이다. 개성적인 건축적 어휘들을 시도하면서도 표현에 지나침이 없고, 현암사 리노베이션에서 보여준 건축가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그러나 외관의 뛰어난 도시적 성과에 비해 내부공간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서, 리노베이션이라는 과제의 한계가 곧 건축의 한계가 된 아쉬움이 있다.

무주 작업들은 수년간에 걸쳐 무주군 한 지역에 십수점의 공공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현한 건축군(群)이다. 건축적 태택에서 소외된 무주군에 쏟은 건축가의 애정과 희생,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이룩한 건축적 성취들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빛나는 귀감이다. 그러나 작가가 아니라 대표작품에 수여한다는 김수근문화상의 수상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파주출판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쉽지 않은 현상설계 절차를 거쳐 실행되고 있는 작품이다. 철학적이기까지 한 도시 설계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거대한 규모의 건물을 효과적으로 분절하고 연결하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담아냈다. 은근한 상징적 형태를 통해 도시

의 시작점을 이루면서도, 다양하고 변화 있는 내부공간들이 절제된 규율에 따라 구성되어 확실한 도시 커뮤니티의 장소를 형성했다. 단, 마스터플랜 상의 전체 영역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 완공작이라는 점이 문제되었지만, 뚜렷한 건축적 개념과 도시적 해석, 정공법에 가까운 공간의 완성도 등이 이미 입증되어 상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작품으로 평가되어 올해의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상작 선정에 못지않게 이 상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현재 건축계는 매우 다양한 층위의 활동들이 벌어진다. 도시설계에 가까운 거대 프로젝트에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계에 시작업까지 건축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상업, 업무, 관공서 시설부터 전원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유형을 막론하고 완성도와 건축적 질에 대한 차이도 사라져간다. 외국건축가의 국내작품, 공동작업에 대한 크레딧, 단계별 완공이 벌어지는 작업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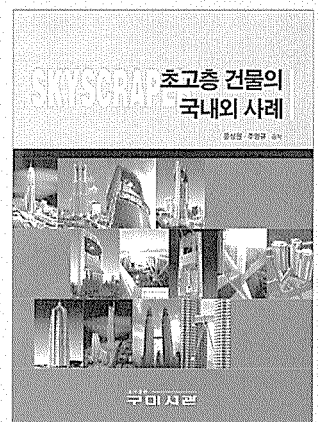
논의 끝에 다음 해부터는 ‘지난 1년간 완성된 작품’이라는 기계적 시간의 제한을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작품’으로 넓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영역과 경향의 작품들을 수용해야 할 필요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작가의 치열한 고뇌에서 얻어진 건축적 개념들이 형성되었고 건축적 완결성을 동반해야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것이다.

올해의 수상작은 물론, 후보작들의 성과를 되새기면서 해당 건축가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고 축하를 드린다.(대표집필 김봉렬)

신간

초고층 건물의 국내외 사례

그 동안 대부분의 기술관련 서적들이 상세한 기술 설명에 중점을 두어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이 책은 발표용 자료를 이용하여 상세한 내용보다는 대표적인 사진 및 그림 등으로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 책은 제1장에 구조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고, 제2장에 종로타워, 아셈타워, Bank of China Tower, Jin Mao Building 등 13개 국내외 초고층 건물사례를 소개하고, 제3장에 초고층 건물 관련공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윤성원 · 주영규 공저/223쪽/15,000원/도서출판 구미서관 발행(02-333-1101 www.goomibook.com)